

5·18 발원지 전남대, 14~18일 개교 후 첫 대규모 기념행사

학생·시민사회·지자체 공동 추진 주먹밥 나눔·평화대행진 등 다채 공동체 연대로 ‘대동정신’ 구현

5·18민주화운동발원지인전남대학교가개교 이래 처음으로 5·18을 기념하는 대규모 행사를 추진한다.

단순한 행정적 추모를 넘어 ‘모두가 함께 만든 오월, 모두가 함께 실천하는 오월’을 목표로 5·18 민주화운동의 핵심 가치인 대동정신을 구현할 방침이다.

11일 전남대에 따르면 5·18민주화운동 45주년 기념행사가 오는 14일부터 18일까지 전남대를 중심으로 광주 곳곳에 마련된다.

이번 행사는 대학본부와 총학생회, 총동아리연합회를 비롯해 광주시, 북구, 5·18기념재단, 총동창회, 민주동우회 등이 참여한다.

특히 총학생회와 총동아리연합회 등 학생들이 처음부터 기획에 참여해 위로부터의 기념이 아닌 미래세대가 주도적으로 오월정신을 계승하려는 의지를 반영했다.

행사는 민족·민주화성회 기간(14~16일)과 5·18 항쟁 기간(17~18일)으로 나뉘어 진행되며, 1980년 당시 시민들이 보여준 공동체 의식과 대동정신을 되새기는 한철 나눔, 주먹밥 나눔, 민주평화대행진 등이 핵심 프로그램으로 마련됐다.

먼저 민족·민주화성회 기간인 14일에는 △5·18 굿즈 디자인 공모전(온라인) △그날의 벽화 그리기(5·18 광장 및 민주마루 앞) △릴레이 한철 나눔(도서관 별관 앞) △오월 영화 상영(5·18 광장, 우천 시 민주마루) 등이 진행된다.

릴레이 한철 나눔은 총장을 시작으로 교직원과 학생들이 참여해 1980년 당시의 한철 나눔 정신을 이어간다.

‘5·18 굿즈 디자인 공모전’은 전남대 재학생

과 대학원생을 대상으로 진행 중이다.

5·18의 역사를 현대적 감각으로 담은 디자인을 공모하며, 최종 수상작은 14일 대학 홈페이지를 통해 발표된다.

‘그날의 벽화 그리기’는 전남대 5·18광장과 민주마루에서 진행된다. 과거 교내에 있던 벽화를 각색함으로써 과거에 대한 혐 세대의 재해석 기회를 제공하는 행사로, 이근배 전남대 총장도 페인팅에 참여할 예정이다.

16일에는 △국립 5·18 민주묘지 참배 △전남대 제45주년 5·18 기념식(용봉홀) △대동 주먹밥 나누기(5·18 광장) △대학구성원 민주길 투어가 열린다.

‘국립 5·18 민주묘지 참배’에는 총장을 비롯해 총동창회장, 민주동우회장, 대학평의원의회장, 각 단과대 학(원)장, 부속기관장, 총학생회 대표 등이 참석한다.

이어 전남대 용봉홀에서는 ‘전남대 제45주년 5·18 기념식’이 열리며, 기념식 직후 5·18 광장

에서 ‘대동 주먹밥 나누기’ 행사가 마련된다.

행사에 앞서 김희송 5·18연구소 교수가 ‘5·18 민주화운동 속 주먹밥 나눔’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주며, 공동체 정신의 배경을 짚어줄 예정이다.

같은 날 오후 4시부터는 총장과 보직교수들이 신입생 45명과 함께 ‘민주길 투어’에 나선다.

이번 투어는 정의길, 평화길, 인권길로 이어지는 전남대 캠퍼스의 역사적 동선을 따라 진행되며, 전빛누리 학생홍보대사를 비롯한 박수빈·정세현·이영상·선사랑 학생이 해설사로 동참해 오월정신의 의미를 토래의 언어로 전달한다.

민주길 투어에는 전남대에서 명예철학박사를 수여받는 우원식 국회의장이 동참해 의미를 더한다.

5·18 항쟁 기간인 17일에는 전남대 정문에서 금남로까지 이어지는 ‘민주평화대행진’이 펼쳐진다.

이 행진은 1980년 5월 민주화운동의 시발점

이 된 전남대 정문에서 출발해 항쟁의 마지막 무대였던 금남로까지 도보로 이어지는 대형 행사로, 1만여명의 시민이 공동체적 연대를 통해 오월정신을 되새길 예정이다.

행사 마지막 날인 18일에는 전남대 서울동창회 소속 졸업생들이 교내 민주길을 따라 진행되는 투어에 참여한다.

이근배 총장은 “이번 5·18 주간 행사는 오월정신을 단지 기억하는 데 그치지 않고, 미래세대가 직접 체험하고 공감함으로써 민주주의의 본질을 몸으로 익히는 소중한 시간이 될 것이다”며 “전남대가 지닌 역사적 책임 위에서 세대 간 연대와 참여를 통해 그 가치를 계승하고, 오늘의 언어로 발전시켜 나가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전남대는 행사 기간 중 추모객의 편의를 위해 민주길 코스에 위치한 주요 교내 건물의 화장실을 오는 25일(오전 9시~오후 6시)까지 개방한다.

최환준 기자

‘브로커 승진청탁’ 전직 치안감, 대법서 무죄

“관련 진술 신빙성 없어”

사건 브로커에게 승진 청탁 뇌물을 받고 인사에 관여한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전직 치안감이 항소심에 이어 대법원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된 김모(59) 전 치안감에게 무죄를 선고한 2심 판결을 지난 9일 상고기각 결정으로 확정했다.

김 전 치안감은 2022년 초 광주경찰청장 재직 당시 브로커 성모씨(64)로부터 일선 경찰서 소속 경찰관 A씨(당시 경위)의 승진 청탁과 함께 1,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1심은 김 전 청장에게 징역 6개월과 벌금 2,000만원·추징금 1,000만원 등을 선고했지만, 2심은 ‘사실상 유일한 증거인 브로커의 진술을 믿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검찰은 2심 판결에 불복해 상고했으나 대법원은 심리를 열지 않고 상고기각을 결정했다. 대법원은 형사 사건에서 상고 이유가 부적절한 경우 판결 대신 바로 상고기각을 결정한다.

검찰 측 상고가 기각되면서 브로커에게 승진 청탁과 함께 뇌물을 건넨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내려진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의 2심 판결도 확정됐다.

브로커 성씨는 2심에서 징역 5개월을 선고받았다.

최환준 기자



도배 봉사활동

농교류 농촌 맞춤형 봉사활동에 나선 광주시새마을회가 지난 9일 담양군 창평면 신흥마을에서 도배, 이·미용, 장수사진 촬영 등의 봉사활동을 하며 구슬땀을 흘리고 있다.

광주시새마을회 제공

‘북향아파트 남향으로 광고’ 법원, 원고 청구 기각

공인중개사, 업무정지 정당

북향 아파트를 남향 매물로 광고한 공인중개사에게 내려진 업무정지는 정당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광주지법 행정1부(김정중 부장판사)는 공인중개사 A씨가 광주 서구를 상대로 낸 업무정지 등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고 11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7~8월 북향 아파트 매물 2건을 각각 남향으로, 동향인 아파트 매물 1건은 서향으로 광고해 서구로부터 업무정지 3개월 처분을 받았다.

A씨는 해당 매물들이 아파트 주출입구 방향

을 기준으로 보면 각각 남향과 서향이라고 주장하면서 서구의 처분을 취소해달라고 요구했다.

재판부는 A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허위 광고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의 각 중개 대상물은 주거용 건축물인 아파트로, 각 방향은 주된 출입구가 아닌 주실의 방향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며 “원고가 기재한 방향은 부당한 광고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이어 “계약 당사자 사이의 분쟁을 예방하고 부동산 거래 질서를 확립하려는 공익이 원고가 입게 될 불이익보다 크다”고 덧붙였다.

최환준 기자

화순군수, 외가 문중 꽃단지 특혜 논란 수사 착수

구북구 화순군수가 외가 문중 땅에 꽃단지를 조성해 특혜를 줬다는 의혹과 관련해 검찰이 고발장을 접수하고 수사에 착수했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검은 최근 구군수의 고발장을 제출받아 사건 배당 절차를 마치고 수사에 나섰다.

구 군수는 2023년부터 화순군 춘양면 대신리

임대에 군비 15억원을 들여 관광 꽃단지를 조성했는데, 외가 문중이 소유한 땅을 임대해 특혜를 줬다는 의혹으로 검찰에 고발됐다.

관광지 조성을 핑계로 문중 제각과 묘지 주변의 환경을 정비해 유·무형의 경제적 이익을 줬다는 취지다. 사업 부지는 구 군수의 외가 문중이 소유한 땅으로, 화순군은 5년간 임대하는 조

건으로 1억 700만원을 지급했다. 화순군이 임대한 부지는 9만평에 이른 것으로 알려졌다.

화순군 관계자는 “고인돌 유적지 주변 즐길 거리를 조성하기 위해 관광단지를 조성하게 됐다”면서 “사업 부지는 적절한 절차에 따라 해당 부지가 선정됐고, 특정 가문에게 혜택을 주기 위한 의도는 없었다”고 말했다.

최환준 기자

쌍촌동 (4층건물) 매매

상가 주택

월수익 520만
보증금 6천만

▶ 원가 급매

13억
9억8천만

장성토지 (담양)



① 장성 토지
장성담 5분, 1필지
토목완료, 즉시 건축 가능
(240평, 분할 가능)

② 담양 전원토지
창평중 5분 / 전기,수도 완비

상가 매매 (상무지구)

▶ 상무지구 중심 상업지구

- ▶ 유흥기능 (룸, 노래홀, 홀덱)
- ▶ 6층 (전용 60평)

(보2천, 월수익 250만)

시세 8억
급매 4억 (용3억3천)

법원 경매

★ 경매 관심 있는 분
★ 기초 부터 ~
실전까지

특수 전문
(유치권, 법지)

010-6670-9800

062-382-5500